

## 제18호 태풍 '미탁' 북상...광주·전남 호우특보 발효

고흥 호우경보, 전남 19개 시군·광주 호우주의보...4일까지 강한 비 예보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 1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우산동 풍영정천의 물살이 거세다.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의 전면수령부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대부분 시군에 호우특보가 내려

졌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일 오후 1시를 기해 전남 영광과 함평에 호우경보를 발효했다. 오후 1시 현재 무안·신안(흑산면 제외)·영광·함평·해남에 호우경보가, 광주와 순천·광양·강진·곡성·구례·나주·담양·목포·보성·영암·장성·장흥·진도·화순, 흑산도·홍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여수와 고흥·완도 등 전남 동부해안 지역 호우특보는 오전 11시 해제된 상태다. 기상청은 3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100~300mm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다.

지리산 부근에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4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후 1시까지 내린 비는 신안 압해도 89.0mm, 고흥 포두 85.0mm, 무안 73.0mm, 해남 산이 72.5mm, 화순 이양 69.0mm, 곡성 68.0mm, 강진 마량 60.5mm, 여수 53.2mm, 광주 40.2mm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태풍 '미탁'은 이날 오전 9시 중심 기압 970hPa, 중심 부근 최대풍속 35% (시속 126km), 강도 강의 중형 태풍으로 타이완 타이베이 북북동쪽 약 27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2km 속도로 북진하고 있다.

기상청은 '미탁'이 2일 오후부터 밤 사이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2일 밤 12시 쯤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태풍이 접근하면서 이날 늦은 오후부터 4일까지 바다에 20~30% (시속 72~108km) 강한 바람이 불겠다. 강풍에 7~9m 이상의 파도가 칠 것으로 예보됐다.

육지에서도 해안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최대순간풍속 35~45% (시속 126~162km) 강풍이 불겠고, 내륙에서도 15~30% (시속 54~108km) 바람이 불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의 경계를 따라 북상하고 있는 태풍 '미탁'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변화에 따라 이동경로와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와 태풍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 강진군, 상수도 현대화사업 본격 공사 착수

총 사업비 193억 원 투입

강진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3월 강진군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개시하고 올해 연말까지 현장조사 및 관망 분석을 통한 체계적 노후 상수관망 교체 계획 및 설계를 완료하는 한편 내년도에 본격 관망정비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규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193억 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관로 정비, 지역별 유량, 수압 등의 체계적인 관리

를 위한 블록구축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누수 최소화로 오는 2022년까지 유수율 85%를 달성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특히, 내년에는 총 100억 원을 투자하여 관로 노후가 심한 강진읍과 병영면 급수구역을 중심으로 관망정비 공사가 본격화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인간중심의 통합의료 체험 박람회

건강 더하기  
행복 곱하기  
힐 = 링

대한민국 2019™  
통합의학박람회  
Korea Integrative Medicine Fair 2019  
www.kimex.or.kr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장흥군 안양면 로하스로 157  
2019.10.07 (월) - 10.13 (일)

주최 | 전라남도 | 장흥군 주관 |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추진위원회  
후원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완도군, 완도수출식품협회, 현지 유통업체인 리엔코(Riz&Co), 르델라스(LE DELAS) 4자간 업무협약 체결.

### 완도군, 해조류 식품으로 유럽 식탁 공략에 나섰다

프랑스 현지서 르델라스와 업무 협약...해조류·전복 쿠킹 클래스 성황

완도군은 지난 달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동안 프랑스 파리 일원에서 완도산 해조류의 유럽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먼저 완도산 식품이 전시·판매 되고 있는 유럽 최대의 백화점 붐마셰(Bon Marche)에 들러 유통 과정을 점검하고 수산물 바이어들과 면담을 통해 완도군 수산물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1838년에 설립된 붐마셰 백화점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급 백화점으로서 식품 코너 직원만 400명이 넘는 곳이다.

이어 유럽 최대 규모의 현지 시장 내 대형 식자재 공급업체인 르델라스사로 이동하여, 완도군과 완도식품수출협회, 현지 유통업체인 리엔코(Riz&Co) 그리고 르델라스사 4자 간 완도 해조류 프랑스 유통 판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을 통해 4자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럽 시장에 완도 수산물 시장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 등을 합의했다.

현지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농수축산물 도매 시장이며, 업무 협약을 체결한 르델라스사는 1973년 설립된 대형 식자재 공급업체로서 직원 수만 150여 명에 이르는

우수 기업이다.

프랑스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는 '한국 바다의 보석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완도 바다 해조류 홍보 간담회 및 요리 교실을 열었다.

이날 현지 언론인과 수산 바이어, 셰프, 유통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가하여 완도산 해조류에 대한 유럽인들의 큰 관심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프랑스 식품 트렌드 중심에 있는 해조류의 장점과 미래 가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고, 이어 현지 레시피를 활용한 해조류 요리교실과 함께 시식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ISA사 네오 레스토랑인 잡지사서와 공동 진행하며 언론 홍보에도 박차를 가했다.

완도군은 건강식 트렌드로 해조류가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완도산 해조류 등 수산 특산품을 활용한 프랑스 유명 셰프 쿠킹 클래스 운영 및 동영상 제작 배포를 통해 한국 식재료의 인지도 향상과 함께 유럽시장 진입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개천절 휴무로 다음 호 7일자 발행합니다